

우리시대에 선비는 있는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최후의 선비들
함규진 지음

“붓으로 세상 지배하는 사람”
최익현·황현 등 구한말 20명
교훈 준 반면에 역사 오점도

는 것이 선비의 사명이라 생각했다. 그는 자결하는 순간까지 “이 행동은 개인의 뜻이 뿐, 충성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채호의 삶은 한마디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는 신념에 비추어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추후의 타협을 하지 않았다. 중국을 근거지로 저술과 독립운동에 매진했는데, ‘대륙 지향적’ 역사관과 민족주의가 고스란히 저서에 담겼다.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등과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은 개화사상을 주창했다. 일본을 등에 업고 가능성 없는 쿠데타를 모의할 만큼 최고의 급진파였다. 외무대신 박제순은 치욕적 조약인 을사조약에 히로부미와 조인을 했다. 그는 가장 선비다운 아 할 순간, 선비답지 못한 모습으로 역사에 최악의 오점을 남겼다.

이상룡은 ‘민간단체를 잘 수립하고 잘 운영하는 게 구국과 경양의 급선무’라는 신념을 견지했으며, 김창숙은 독립을 청원하는 장서를 파리 평화회의에 보내기로 하는 등 독립운동에 힘썼다.

작금의 유학이 삶의 법도가 되는 시대는 아니다. 그럼에도 삶에 일말의 교훈을 줄 여지는 남아 있다. 저자는 ‘최후의 선비들’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희망과 비전을 읽는다면 그것이 바로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우리시대에 선비는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인물과사상사·1만6000원>/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역력 소설가·문학박사·전남대 강사, 저서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



척화를 주장했던 최익현(왼쪽부터 시계방향)과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신채호, 황현의 저술을 엮은 ‘매천집’.

“천하의 근심을 누구보다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맨 나중에 즐기라.” 이 말은 북송(北宋)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범중염이 제시한 인간상이다. 오늘날의 동양식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선비 정신이다. 그와 같은 인간상은 오랫동안 중국과 한국의 선비 모델로 여겨졌다.

과연 선비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오늘에도 선비는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선비의 사전적 의미는 “재물을 탐내지 않고 의리와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학식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세계사를 둘러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지배권력을 가진 이들은 칼과 총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동양적 관점에서의 선비는 “붓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행정이나 예비 행정가였기에 국가의 통치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의 역사에서 선비는 고조선시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보편적인 선비의 상은 조선시대 이르러 적립됐다. 글재주와 도덕적 모범을 갖추고 유교적 이

념을 구현하는 주체들이었다. 건국 때부터 무인이나 스님 등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조선은 선비를 사회의 주역으로 여겼다. 특히 사람이 권세를 떨치던 조선 중기부터는 “선비의 기상이야말로 원기(元氣)”라는 말이 상식이 되었다.

조선의 선비들을 다각도로 조명할 책이 나왔다. 함규진 서울교대 교수가 펴낸 ‘최후의 선비들’은 “미혹과 광란의 시대”로 대변되는 구한말을 살았던 선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시기는 외세의 위협으로 강화도 조약을 맺은 1876년부터 조선의 왕조가 무너진 1910년까지 불과 30여년 남짓한 시간이다. 길게는 서학을 배제하고 척화와 쇄국을 국시로 내걸었던 1801년부터 100년의 기간이기도 하다.

책에는 모두 20여 명의 선비들이 등장한다. 위정척사를 내세워 개혁에 맞섰던 최익현은 75세에 도끼를 들고 궁궐 앞에 나와 ‘척화’를 주장했다. 전주는 명성황후가 처참하게 시해당한 사건(1895)을 두고 크게 통탄했다. “이 원수를 갚아야 한다”며 분개했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다섯 역적의 목을 벨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황현은 나라가 외세에 넘어가자 붓을 들어 ‘절명시(絶命詩)’를 쓰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대의 모순을 역파하고 후대에 귀감이 되는 글을 쓰

존 그리빈·메리 그리빈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 실험 100’

“물리학의 발전을 되돌아보면, 작은 발견들이 무수히 축적된 다음 수많은 거대한 도약이 그 위에 중첩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양자 이론의 선구자 폴 디랙의 말이다. 그의 말은 과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발적으로 진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과학작가이자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존 그리빈·메리 그리빈이 펴낸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 실험 100’은 100개의 실험을 통해 과학의 역사와 흐름을 보여준다. 동시에 각각의 실험을 실행한 수백 명의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다.

과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실험과 이를 담당했던 과학자들이 등장한다. 갈릴레오는 물체의 낙하속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밝혔고, 토머스 영은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뉴턴조차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뉴턴의 이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축적된 것이다. 책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수많은 이론과 법칙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르게 됐는지 보여준다. 토리첼리가 발견한 ‘진공’이 과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상을 지니는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과 패러데이의 ‘전동기’가 왜 테크놀로지 혁명의 시발점인지 등 과학실험의 역사적 성과를 보여준다.



<예문아카데미·2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제임스 F. 웰스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

종교개혁은 부패한 교회에 대한 진정한 개혁이었을까. 십자군전쟁은 신의 뜻인가, 인간의 탐욕 때문인가. 기술의 과신 탓에 빚어진 원자력발전소 사고, 우리의 미래는 안전할 것인가.

2017년 세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이에 대한 제재 조치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를 향해 말포탄을 퍼부으며 전쟁의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을 올해 처음 벌어진 것은 아니다. 이면에 명백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자멸적인 싸움을 반복하는 것일까.

역사만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되는 분야도 드물다. 경제사, 문화사, 예술사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롭게 분석되고 해석된다. 세계역사에서 탐욕과 부패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는 한 축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꼽는 이가 있다. ‘어리석음의 이해’ 등 다수의 문제작들을 펴낸 제임스 F. 웰스가 이번에는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를 발간했다.

저자는 어리석음을 통해 새롭게 역사를 바라본다. 문명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 이전의 탐욕과 부패, 오만과 분노의 기록을 ‘어리석음’이라는 관점으로 조명한다. 18세기에 벌어졌던 마녀사냥은 광기에 이르는 전형적인 예다.

‘기술은 진보’라는 오만한 믿음에서 야기된 최악의 사건은 타이타닉호 침몰이었다. 저자는 ‘진짜 어리석음은 역사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의 결과를 보고 있으면서 그것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야기가있는집·1만8000원>/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정한아 ‘진밀한 이방인’

소설가 정한아의 장편 ‘달의 바다’를 흥미롭게 읽었던 사람이 라면 그녀의 작품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미국 나사(NASA)의 우주비행사가 되었다는 고모를 찾아 미국으로 떠난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야기는 경쾌한 반전으로 마무리된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담긴.

정씨가 장편 소설 ‘리틀 시카고’, 소설집 ‘나를 위해 웃다’에 이어 한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을 출판한 한 인물을 추적해 가는 장편소설 ‘진밀한 이방인’을 펴냈다.

“늘 거짓말쟁이와 사기꾼들에게 마음이 끌렸고, 그들이 꾸는 헛된 꿈과 허무맹랑한 욕망이 내 것처럼 달콤하고 쓰렸다”고 작가는 말하는데 이번 작품 역시 이름, 학력, 직업, 성별 등 ‘모든 것’이 거짓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칠년 동안이나 소설을 쓰지 못한 ‘나’는 신문 광고에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란다. 자신이 데뷔하기 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공모전에 냈다 낙선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후 육체적 전 실종된 남편을 찾고 있다는 여자에게서 연락이 오고,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광고 속 소설을 쓴 작가로 행세했다고 말한다. 또 자신의 남편은 남자가 아닌 여자였고, 자격증 없이 의사로 활동하는 등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는 말을 듣는다. ‘나’는 각기 다른 세 남자의 부인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았던 ‘그’를 추적하며 예기치 못한 광경을 만나게 된다.



<문학동네·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h3>영광 전원주택 매매</h3> <p>전원주택 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가 가능 최근 리모델링 완료</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3천만 매가 9천8백</p> <p>직매 010-6670-9800</p>	<h3>수기동 상가 매매</h3> <p>천변로 전망최고 20층 중 6층</p> <p>45평 (주차완비) 고급시설 (리모델링 5천만투자)</p> <p>보 1천 월 60만</p> <p>시세가 1억 5천 매가 9천7백 (용5천)</p> <p>직매 010-6670-9800</p>	<h3>경매 (주)대신경매</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구 충장로 (4층 상가건물) 토지 215평 건물 157평 금남로 4가역 1분 (대형 주차장있음) 감정가 11억 → 최저가 8억8천 2) 광산구 월곡동 (상가주택) 토지 51평 건물 134평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6천 3) 금남로 16층 (상가건물) 토지 488평, 건 6,000평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40억 4) 동구 서석동 (주택) 토지 153평 건물 50평 서석초, 동구청 1분 (조선대 3분) 감정가 4억9천 → 최저가 4억9천 5) 나주 경현동 (4층 상가 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위치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9억9천 6) 전주시 완산구 전동 (3층 상가건물) 토지 268평 건물 528평 한옥마을 인근 (월세 1천만 이상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40억 	<h3>경매교육</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찰까지 원스톱 진행 <p>전문직업 컨설팅반 (프리 1년반)</p> <p>(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p>
010-7384-7800		010-6670-9800	